

“옵티칼노동자들 고용승계 그날까지 평택공장 안떠난다” 노조, 21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열어

금속노조는 21일 11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정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평택공장 무기한 농성 돌입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니토 자본은 공장 화재를 핑계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아래 옵티칼)를 위장 청산했다.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또 니토 자본은 옵티칼 구미공장 물량을 같은 니토 자본의 한국니토옵티칼(아래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그대로 가져갔다. 물량만 빼내고 노동자 고용은 승계하지 않은 것. 지회 박정혜, 소현숙 조합원 두 명이 고용승계를 외치며 옵티칼 구미공장에서 고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고농성 134일째를 맞았다.

노조 구미지부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먹튀 자본에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 지회장은 “외투기업

이 마음대로 공장을 정리하고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라며 “정부 역할과 대응 법안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지회장은 “옵티칼 사원복을 입고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다. 다시 작업복 입고 당당히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출근하고 싶다”라며 “니토 자본이 우리의 고용승계 요구를 이행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울산 북구, 진보당)

이 함께했다. 윤 당선인은 농성장에 들어와 있는 경찰력을 가리키며 “지금 경찰이 할 일은 농성장 강제 철거가 아니라, 니토 자본이 저지른 노동 탄압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현재 경찰은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 농성장 출입을 막는 등 지회 농성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니토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편법 운영 및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 열릴 22대 국회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